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8)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준다면 존재할 수 있다, 허클베리핀팬협동조합



2014.03.20 | 이수연_ 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첫 번째 사례인 우리가 잘 해야죠. 자기 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기획사인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기획사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먼 이야기지만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가면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 ‘공존공생’에 출연한 초대손님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한국 최초로 팬클럽을 가졌던 대중가수는 누구일까? 오빠부대를 끌고 다닌 최초의 가수는 남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인 팬클럽이 결성된 최초의 가수는 조용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로 팬협동조합을 가졌던 가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아마도 “아니, 팬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 라는 질문이 튀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최초의 팬협동조합은 2013년 7월 창립총회를 연 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팬협동조합 되시겠다. 바로 허클베리핀팬협동조합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팬클럽이 아니라 팬협동조합이라고?

허클베리핀은 인디밴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인디밴드’ 라고만 부르기에는 아쉬운 밴드이다. 허클베리핀은 한국 인디밴드나 모던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밴드로, 이는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 수상과 경향신문 주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두 개의 앨범이 수록되는 경력으로 증명된다. 무엇보다도 듣도 보도 못한 ‘팬협동조합’ 이라는 것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무언가 대단한 면모를 지닌 밴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공존공생과의 인터뷰 자리에는 허클베리핀의 리더 이기용씨와 팬협동조합의 백으뜸 이사장이 함께 해주었다. 백 이사장은 팬협동조합이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허클베리핀의 팬클럽 회장이었다. 2010년 음악축제에서 허클베리핀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3개월 만에 팬클럽 회장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 백 이사장은 여전히 허클베리핀의 공연을 보러 가면 잠시 숨이 멈출 만큼 좋다고 말하며 ‘팬심’ 을 자랑한다.

허클베리핀팬협동조합은 “허클베리핀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음악적 결과물을 (약간의 할인을 받아) 아주 오랜 시간 즐기는 것, 외부적으로는 대중음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고 정관에 밝히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수는 53명으로 이 중 3분의 2는 허클베리핀의 팬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허클베리핀의 지인들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은 출자금 1만 원과 조합비로 매월 1만 원을 납부한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오래도록 듣기 위해서

그런데 팬클럽도 있으면서 왜 굳이 팬협동조합을 만든 것일까?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백 이사장은 이렇게 답한다.

“굳이 협동조합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하자면, 우리나라 대중음악 시장이 구조적으로 기형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이돌 음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대형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음악을 하는 밴드들은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죠. 밴드들은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구조적 문제를 저희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결국 밴드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느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위해서는 팬클럽보다는 협동조합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팬협동조합은 허클베리핀의 음악 작업실 월세로 한 달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백 이사장은 솔직히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조합원 중에서도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한다. 모두가 계속해서 배우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허클베리핀 밴드의 구성원들에게도 협동조합은 낯선 존재라고 한다. 한 번은 공연 중에 팬협동조합을 소개한다는 것을 실수로 ‘팬노동조합’ 이라고 말해서 공연장 분위기가 이상해진 적이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여전히 ‘조합’ 이라고 하면, “그거 혹시 파업하고 그러는 과격한 곳이냐?”, “사회주의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고 한다.

이렇듯 아직 협동조합이 낯설지만, 그럼에도 백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하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도 들고, 팬클럽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팬협동조합의 사업계획에는 작업실 월세나 음반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공연 기획, 상품 제작 및 판매 등도 담겨 있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는 임의 단체인 팬클럽보다는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새로운 연예기획사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공연 기획 등의 일은 주로 기획사에서 하는 일인데, 팬협동조합이 이런 일을 기획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백 이사장은 “이제까지 팬으로서 허클베리핀의 공연을 보아왔던 사람으로서 팬이자 조합원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조합원들이 포스터도 제작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다. 매우 뜻 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허클베리핀의 구성원인 이기용씨도 “팬들이 만든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감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팬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획사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기대가 된다.

한 편 팬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있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허클베리핀의 공연이 1년에 4회 준비되어 있고, 1년에 1회는 허클베리핀과 함께 엠티도 간다고 한다. 새 앨범 발매 시 음감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허클베리핀이 운영하는 술집 ‘샤’ 이용 할 때, 그리고 앨범 구입 시의 할인 혜택 등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조합원 대상의 공연이 작업실에서 진행되었고, 4월에도 또 한 차례의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허클베리핀의 팬이라면 매우 만족스러운 만한 혜택들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막상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허클베리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리더 이기용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주변에서 매우 부러워해요. 팬들이 음악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러 와주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희로서는 굉장한 감동이죠. 조합원이 20명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두 배가 넘었어요. 조합원들이 만들어주는 무대에 한 번 서면 얼마나 감동적인 연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뮤지션도 처음부터 뮤지션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뮤지션이 처음에는 다른 뮤지션의 팬이었어요. 팬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만들어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또 조합원들과의 잦은 만남 덕분에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 작업을 시도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팬협동조합의 정체성 찾아갈 것

그렇다면 기존의 팬클럽과의 관계는 어떻게? 기존 팬클럽 회원들이 섭섭하지는 않을까? 백 이사장 역시 이 점을 제일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팬클럽 회원 수는 3000명 정도이다.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것이 기존 팬클럽 회원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팬들에 대한 혜택도 지키면서 조합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민한다고 한다. 앞으로 팬협동조합이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팬클럽과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리더 이기용씨와 백 이사장의 답은 다음과 같다.

“팬협동조합에 대해 음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다들 잘 몰라요. 첫 번째 사례인 우리가 잘 해야죠. 자기 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기획사인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기획사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먼 이야기지만 앞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가면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고 답했다.

“허클베리핀에 대한 애정만으로 시작했는데, 사업계획서도 써야 하고 각종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협동조합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지원하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올해 목표는 체계를 만들고 앞으로도 팬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예요. 그리고 작업실 월세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연 기획과 상품 제작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볼 거고요. 더불어 협동조합 교육을 위한 소식지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우리 팬협동조합이 잘 되어서 조합원이 1000명쯤 된다면, 허클베리핀은 마음 편히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겠죠. 정말 잘되면 해외진출도 돕고 싶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의미가 되어 살아남는 방법

협동조합이 잘 되는 분야가 몇 가지 있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경우나 독과점 혹은 정보 불평등이 심한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아예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이다. 문화예술의 경우 마지막의 이유로 협동조합이 적절한 틀이 될 수 있다. 인디음악이나 독립영화와 같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클베리핀팬협동조합과 같이 말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후원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나 후원이 매우 협소한 분야에 한정되어 일어난다. 다양한 예술 활동에 대한 기부나 후원 문화가 자리 잡혀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그러한 일을 대신하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허클베리핀협동조합이 장기계획으로 꿈꾸고 있듯이 공연기획이나 해외진출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냄으로써 후원과 차별화를 이룰 수도 있다. 팬협동조합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낯선 만큼 그것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음악이 하고 싶어.” 라는 사람과 “나는 이런 음악이 듣고 싶어.” 라는 사람이 만났다. 자신의 음악을 위해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을 내고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가수는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팬 또한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 가수와 팬이 많아지고, 대중음악 시장에 더 많은 다양성이 제공되는 길에 협동조합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